

“석유공 해외광구 2곳 전문기술검토 생략.. 또다른 부실우려”
News 1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News 1(15.8.30)
- 제목 : 해외광구 2곳 전문기술검토 생략.. 또다른 부실우려

□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5개 해외 신규사업 중 2곳 내부 전문 평가위 절차 생략” 관련
 - 2011년 이후 신규추진된 해외사업은 모두 취득 전 내부절차에 의거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추진된 사업임.
 - 석유공사가 최근 내부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전사위원회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상의 매장량 인증절차 미실시 2개 광구는 공사가 기 운영중인 광구 (운영광구 : 베트남 및 국내 가스전)에 대한 것으로 상기 5개 해외사업과는 관련이 없음.
 - 운영광구 관리규정에 운영광구는 가급적 2년에 한번 매장량 인증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상기 2개 광구는 수년간 매장량 변동요인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내부인증심의회가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 이에 금번 감사는 이러한 매장량 인증관련 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재정비 하도록 개선 요청한 것임.

○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에 따라 NARL 인수와 같은 부실사업 투자가 재발이 우려” 관련

- 공사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장량을 포함한 모든 주요기술평가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르고 있음.
- 따라서, 내부의 기술적 평가절차 없는 사업투자는 있을 수 없음.

□ 기사 보도요약

- 석유공사가 최근 내부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전사위원회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아나다코(Anadarko)와 세일오일 생산광구 지분 인수△EP에너지 광구 개발△UAE석유개발사업△말레이시아 해상 광구 탐사사업△카자흐스탄 알티우스 등 5개의 해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석유개발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통해 최소 2년에 한번은 광구 매장량 인증을 심의해야 함에도 내부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NARL 인수와 같은 부실사업 투자가 재발이 우려됨.